

체감경기의 이분화 경향이 강해지다

~ 경기대책의 기대로 신년부터 상향경향이 강해질 전망 ~

(조사대상 2만3,283사, 유효회답 1만833사, 회답률 46.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와 포인트

- 8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5.1이 되어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혼란에 더하여 공공사업의 발주지연이나 생산활동의 약세가 드러나고 있다. 국내경기는 중국발 세계 동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하 되었으나, 고용·소득환경의 안정도 있어 체감경기의 악화는 소폭에 머물렀다. 향후에는 신년부터 상승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 업계별로는 『금융』 『제조』 『서비스』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된 반면, 균형있는 소비가 진행되어 고액품의 구입도 증가한 『소매』 등 4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더욱이 업종별로 보면, 악화가 51개 업종 중 26개 업종, 개선이 23개 업종으로 체감경기는 업종간에 이분화 되는 상황이 되었다.
- 지역별로는 『미나미칸토』 나 『큐슈』 등 6개 지역이 악화, 『시코쿠』 나 『호쿠리쿠』 등 3개 지역이 개선, 『홋카이도』가 보합 되었다. 공공공사의 발주가 미루어지는 가운데 대형 태풍등의 기상 불안정으로 점포휴업이나 어획량 감소도 더해져 지역간의 명암이 나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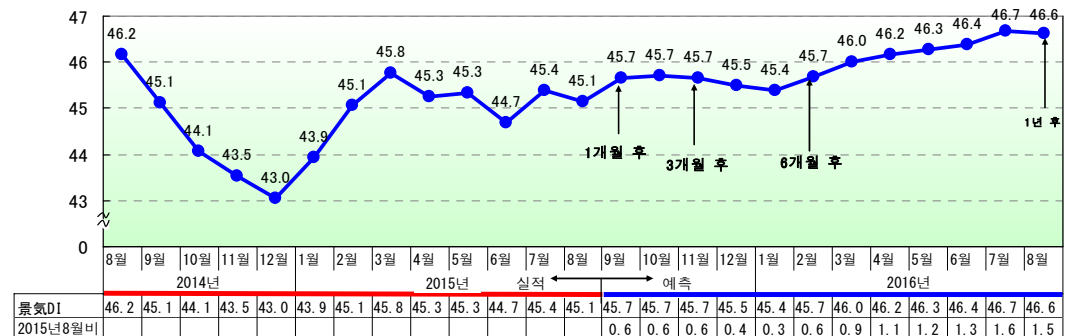
< 2015년 8월의 동향 : 소폭 악화 >

2015년 8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5.1이 되어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8월은 공공공사의 발주가 미루어지고 축소되는 이외에, 수출용 공작기계의 대폭적인 수주감소나 대기업 전기메이커의 발주축소, 국내 자동차 생산의 침체 등으로 생산활동도 약세였다. 또한 고용상황의 팽박이나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반한 인건비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격전가가 곤란한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의 인민화 시세의 인하나 상하이 주식시장의 급락을 발단으로 크게 혼란되었다. 한편 유효구인배율은 23년 5개월만의 높은 수준이 된 이외에, 오봉기간의 기후가 안정되어 여행수요 등이 견조하였다. 더욱이 프리미엄 상품권이나 내수소비의 혜택을 받은 『소매』가 개선되는 등 업종이나 지역, 기업규모에 있어서 체감경기가 이분화 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국내경기는 중국발 세계 동시 주가하락으로 저하 되었으나, 고용·소득환경 등은 안정적으로 추이하여 체감경기의 악화는 소폭에 머물렀다.

< 향후의 전망 : 신년 이후 상향경향이 강해진다 >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등으로 신흥국으로의 수출감소에 의한 생산조정 등의 장기화나 기업의 투자 의욕저하가 우려된다. 한편 2016년 봄의 대졸취업활동의 시작으로 기업의 채용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신규구인배율이나 유효구인배율은 기록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어, 고용자 소득은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일정상의 사정 등으로 허술해진 경제정책은 내년의 참의원 선거에 맞추어 다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의 변화전망은 플러스 재료라 말할 수 있겠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연내에 점차 약세로 추이하나, 경기대책의 실시 등으로 신년부터 상승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계별 : 업종간에 개선과 악화가 이분화 되다

•『금융』『제조』『서비스』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된 반면『소매』『운수·창고』등 4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업종별로는 악화가 51개 업계 중 26개 업종, 개선이 23개 업종이 되어 체감경기는 업종간에 이분화 되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46.5) …전월 대비 1.6포인트 감소.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사업자수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으로 리스크 회피 경향이 높아졌다. 실질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가계지출을 줄라내는 경향이 강해져 신용카드업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또한 자연재해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손해보험이나 연금보험계약이 부진하고 있는 생명보험 등도 악화되었다.

•『제조』(44.2)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실속으로 해외용 공작기계 수주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기계제조」(50.3, 동 1.6포인트 감소) 나, 대기업 전기 메이커의 발주축소나 폭발사고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된「전기기계제조」(44.8, 동 2.6포인트 감소) 등 기계관련이 대폭 악화하였다. 또한「철강·비철·광업」(42.8, 동 0.8포인트 감소)는 자동차생산·수출이 침체된 영향을 받아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반면,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된 것에 더하여 내수수요도 견조하였던 의약품 제제제조를 포함한「화학제품제조」(45.3, 동 0.6포인트 증가)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는 등『제조』는 12개 업종 중 6개 업종이 악화, 5개 업종이 개선되는 등 체감경기가 이분화 되었다.

•『서비스』(50.1) …동 0.3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4월에 시행된 간호보수의 마이너스 결정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노인복지 사업을 포함한「의료·복지·보건위생」(43.6, 동 1.7포인트 감소)이나 공공공사의 지연·축소로 발주량 감소의 영향을 받은 건물서비스나「기계제조」의 악화가 영향을 끼친 기계설계와 같은「전문 서비스」(51.4, 동 0.6포인트 감소)가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또한 음료회사에 의한 자판기투자의 재검토나 최저임금상승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청소업무의 단가억제등이 영향을 끼친「유지보수·경비·검사」(47.4, 동 0.2포인트 감소) 등『서비스』는 15개 업종 중 7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소매』(42.4) …동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원유가격의 하락과 동반하여 가솔린 가격이 저하되는 가운데 날씨가 좋았던 오봉기간 중에는 승용차를 이용한 국내여행이 증가하여 주유소 등을 포함한「전문상품소매」(41.6, 동 1.7포인트 증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절약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균형있는 소비를 하는 소비자의 고액품 구입이 늘어나 백화점이나 통신판매와 같은「각종상품소매」(49.0, 동 0.2포인트 증가) 등『소매』는 9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개선되었다.

		1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농·임·수산		40.9	42.1	41.8	38.6	39.5	41.3	40.0	44.0	43.7	45.0	41.9	42.9	44.7	1.8
금융		47.9	47.1	44.9	45.3	45.2	45.1	44.7	48.0	48.1	47.4	49.2	48.1	46.5	▲ 1.6
건설		53.2	52.8	51.6	51.0	50.3	50.4	50.4	50.8	49.3	48.6	47.7	48.6	48.8	0.2
부동산		46.8	47.0	45.2	43.6	44.1	45.1	47.2	48.8	48.8	49.6	49.1	49.8	48.4	▲ 1.4
제조	식품료품·사료제조	39.8	39.5	39.0	36.8	37.5	37.2	39.8	43.1	42.1	44.3	43.1	43.4	43.0	▲ 0.4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42.0	39.8	39.4	36.8	38.1	36.8	39.7	37.6	40.2	41.7	39.4	39.4	40.2	0.8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4.6	43.3	44.0	44.1	43.3	43.2	41.9	42.1	40.3	40.9	40.3	41.2	41.2	0.0
	발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6.2	36.1	36.7	36.1	36.3	34.8	37.3	39.3	39.8	40.0	39.0	39.7	42.0	2.3
	출판·인쇄	33.7	33.1	31.5	31.5	31.0	31.8	33.5	34.1	34.6	34.1	33.5	33.7	34.9	1.2
	화학제품제조	45.8	43.4	42.4	42.9	43.3	43.2	44.5	44.6	44.1	44.4	43.9	44.7	45.3	0.6
	철강·비철금속·광업	49.1	46.8	45.3	44.4	42.8	44.8	46.8	45.2	43.9	43.0	42.9	43.6	42.8	▲ 0.8
	기계제조	52.2	51.7	50.5	50.0	48.6	49.6	51.5	52.6	52.5	51.6	51.3	51.9	50.3	▲ 1.6
	전기기계제조	47.3	46.2	46.1	45.9	45.8	47.3	48.4	49.7	47.7	47.3	47.4	47.4	44.8	▲ 2.6
	수송용기계·기구제조	53.4	50.7	48.2	48.0	47.7	47.4	50.3	50.4	51.1	47.8	49.7	50.9	50.8	▲ 0.1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9.3	48.1	46.6	45.4	45.0	47.9	48.9	49.2	47.8	49.8	49.4	50.4	51.2	0.8
	기타 제조	39.3	38.3	37.9	38.4	35.2	35.4	38.7	38.7	37.1	40.7	37.8	39.2	37.7	▲ 1.5
전체		45.6	44.2	43.4	42.9	42.3	43.0	44.6	45.1	44.4	44.5	44.0	44.6	44.2	▲ 0.4
도매	식품료품도매	39.6	39.9	39.0	37.1	37.6	38.3	39.7	40.6	42.6	42.9	43.0	44.1	42.7	▲ 1.4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5.9	35.3	34.3	30.7	30.2	31.1	32.2	33.3	35.5	37.0	34.8	34.4	34.7	0.3
	건축·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42.9	41.5	41.0	39.5	39.3	39.0	40.5	40.2	38.2	38.7	38.1	39.8	39.7	▲ 0.1
	종이·문구·서적도매	34.6	33.8	32.9	33.5	31.8	33.2	35.1	37.7	37.3	38.1	34.5	37.1	36.5	▲ 0.6
	화학품도매	42.8	40.8	40.6	40.0	37.8	38.9	41.2	41.8	42.5	43.0	43.1	43.9	42.6	▲ 1.3
	채광자원도매	47.3	46.1	37.8	40.4	40.8	39.0	38.5	39.3	39.7	42.3	40.1	35.8	36.0	0.2
	철강·비철금속·광업제품도매	44.9	43.5	43.2	43.8	42.1	43.9	43.5	43.2	41.2	40.3	39.3	40.4	40.3	▲ 0.1
	기계·기구도매	46.7	44.9	43.9	43.6	43.2	44.8	46.0	47.3	46.7	46.3	45.1	45.6	45.3	▲ 0.3
	기타 도매	40.2	38.5	36.7	37.1	35.1	37.5	38.5	40.7	40.9	41.8	42.0	42.4	41.4	▲ 1.0
	전체	42.9	41.5	40.6	40.0	39.1	40.4	41.5	42.5	42.3	42.5	41.7	42.5	41.9	▲ 0.6
소매	식품료품소매	40.7	39.3	36.8	34.7	34.5	36.8	38.2	39.4	39.3	41.6	42.7	45.0	44.0	▲ 1.0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6.2	38.2	36.7	32.0	30.8	30.7	32.3	34.8	38.0	40.2	37.2	38.6	38.7	0.1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0.7	41.7	41.1	42.6	38.9	44.6	45.3	46.0	48.1	48.0	48.6	49.3	48.7	▲ 0.6
	가구류소매	30.6	37.0	22.7	27.3	26.4	28.8	33.3	27.8	35.0	40.0	43.3	41.7	41.7	0.0
	가전·정보기기소매	37.4	36.1	36.2	36.0	34.3	39.3	39.0	43.2	38.4	41.5	40.6	38.9	38.7	▲ 0.6
	자동차·동·부품소매	34.4	33.0	30.1	31.8	28.7	37.8	40.7	38.8	36.5	39.9	37.2	38.3	38.7	0.4
	전문상품소매	36.8	36.2	36.3	36.0	39.2	41.4	43.7	42.3	39.4	40.5	38.0	39.9	41.6	1.7
	각종상품소매	41.7	41.8	41.2	39.1	40.5	42.6	41.0	40.6	47.1	49.7	48.1	48.8	49.0	0.2
	기타 소매	43.3	37.5	40.0	40.0	41.7	33.3	36.7	38.9	41.7	36.1	43.3	35.7	44.4	8.7
	전체	37.8	37.5	36.3	35.5	35.9	39.1	40.5	40.5	40.2	42.1	40.7	41.9	42.4	0.5
운수·창고		45.8	43.7	43.7	44.8	43.8	43.7	44.8	44.9	44.8	44.8	42.6	44.4	44.9	0.5
서비스	음식점	48.7	46.7	42.6	45.1	39.9	44.6	45.2	49.2	50.0	49.6	48.3	47.4	51.3	3.9
	전기통신	50.0	50.0	46.3	48.1	50.0	56.3	53.7	48.3	54.2	53.7	50.0	53.0	53.0	6.0
	전기·가스·수도·열공급	48.3	50.0	46.3	43.8	44.4	50.0	50.0	48.3	55.0	53.7	53.0	50.0	51.9	1.9
	리스·임대	51.7	51.8	49.7	49.9	49.1	50.9	50.0	49.3	49.6	47.9	47.9	48.7	49.9	1.2
	호텔·호텔	44.4	46.2	46.3	47.0	47.6	47.7	49.5	48.6	51.4	53.1	54.2	59.2	59.0	▲ 0.2
	오락서비스	39.5	39.4	39.5	36.4	36.5	34.4	36.7	40.6	38.7	40.2	37.9	37.3	38.0	0.7
	방송	45.2	44.0	45.2	43.3	41.7	44.4	40.0	45.6	47.9	45.6	46.1	49.1	46.1	▲ 3.0
	컨텐츠·경비·검사	46.8	45.7	45.8	43.1	42.6	44.6	46.9	47.2	47.8	48.1	47.4	47.6	47.4	▲ 0.2
	광고관리	41.4	41.1	38.6	38.7	38.8	38.8	39.3	42.1	42.2	41.1	41.0	39.8	40.7	0.9
	정보서비스	53.5	52.8	51.4	51.6	52.2	53.5	54.6	56.3	56.3	55.3	55.4	56.4	55.8	▲ 0.6
	임대·판매·소개	56.2	56.9	55.6	53.9	54.0	55.7	57.5	56.7	55.5	56.2	56.3	54.4	55.0	0.6
	전문서비스	53.7	53.9	50.7	50.7	50.3	50.8	51.4	53.0	51.0	51.7	50.9	52.0	51.4	▲ 0.6
의료·복지·보건위생	47.1	46.2	46.2	45.0	44.1	44.7	45.7	45.3	46.1	46.3	43.3	45.3	43.6	▲ 1.7	
교육서비스	40.7	41.7	42.4	41.7	39.9	40.5	40.2	39.5	41.2	41.1	44.4	40.6	44.1	3.5	
기타 서비스	48.4	47.2	44.9	45.2	45.0	47.4	48.1	47.2	46.1	46.8	49.5	50.9	48.5	▲ 2.4	
전체		49.7	49.2	47.7	47.3	47.2	48.3	49.2	50.3	50.1	49.9	49.7	50.4	50.1	▲ 0.3
기타		43.1	42.8	40.6	37.7	41.5	37.3	41.7	42.0	43.2	40.2	41.9	42.6	40.7	▲ 1.9
격차 (10개업제별『기타』제외)		15.4	15.3	15.3	15.5	14.4	11.3	10.4	10.3	9.9	7.8	9.0	8.5	8.2	▲ 0.6
중국진출		48.8	46.2	45.5	45.3	44.7	45.6	47.4	47.8	48.2	47.9	47.0	47.5	46.9	▲ 0.6
태양광발전		51.7	50.2	47.7	46.5	46.0	45.7	47.0	48.0	46.0	47.2	44.5	47.8	46.5	▲ 1.3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 「중소기업」이 2개월만에 악화, 「금융」「부동산」 등이 저하

- 「대기업」이 48.9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 「중소기업」이 44.1 (동 0.4포인트 감소), 「소규모기업」이 43.2 (동 0.2포인트 감소)가 되어 「대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도쿄올림픽 수요나 대형 공공공사의 수주가 견조하였던 「건설」, 프리미엄 상품권에 의한 매출확대나 내수소비의 은혜를 받은 「소매」 등 4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자수의 감소경향에 더하여 주식시황의 침체가 영향을 끼친 「금융」, 토지나 건설매매가 저조한 「부동산」 등 6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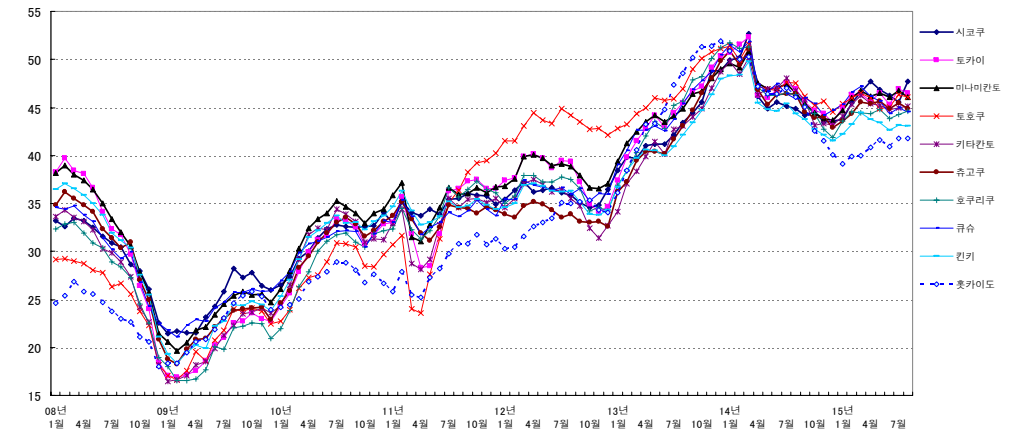
	1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대기업	49.2	48.1	47.5	46.9	46.6	47.1	48.0	48.6	48.9	49.2	48.4	48.8	48.9	0.1
중소기업	45.3	44.3	43.1	42.6	42.0	43.0	44.2	45.0	44.3	44.3	43.6	44.5	44.1	▲ 0.4
(그 중 소규모기업)	44.7	44.0	42.5	42.1	41.6	42.3	43.4	44.3	43.1	43.2	43.1	43.4	43.2	▲ 0.2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3.9	3.8	4.4	4.3	4.6	4.1	3.8	3.6	4.6	4.9	4.8	4.3	4.8	

※색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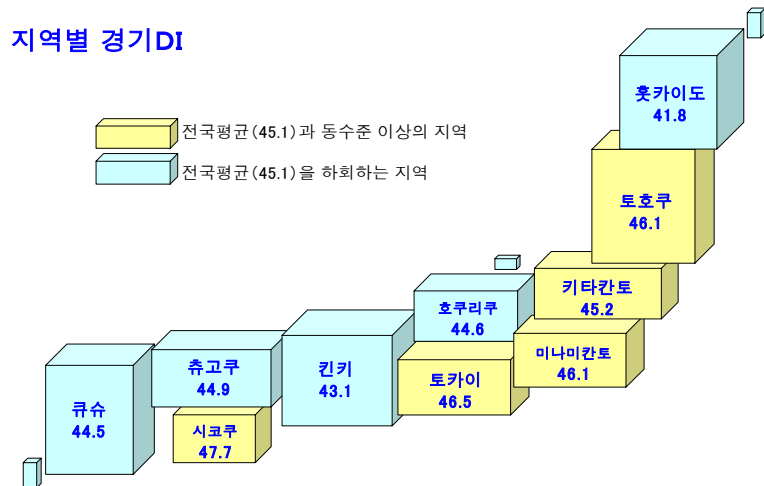
지역별 :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지역간의 명암이 나뉘다

- 「미나미칸토」나 「쥬고쿠」「큐슈」 등 6개 지역이 악화, 「시코쿠」나 「호쿠리쿠」 등 3개 지역이 개선, 「홋카이도」가 보합되었다. 공공공사의 발주가 지연되는 가운데 대형태풍 등의 기상 불안정도 더해져 지역간의 명암이 나뉘었다.
- 「미나미칸토」(46.1) …전월 대비 0.7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지역내 1개 도, 3개 현의 전 10개 업계 각 규모가 전부 악화되었다. 원가코스트의 상승과 동시에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격의 물건이 적어서 매입이 곤란한 상태가 계속된 「부동산」이나, 저조한 「건설」수요에 동반되는 시멘트 출하의 악화 등 화물의 이동이 둔하였던 「운수·창고」는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 「큐슈」(44.5) …동 0.4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지연이나 축소로 하청 금액이 대폭으로 감소한 이외에, 대형태풍에 의한 연회의 취소나 점포휴무, 어획량감소 등 기후요인이 경기악화에 타격을 입었다. 「큐슈」는 10개 업계 중 4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지역내 8개 현 각각의 경기 증감폭이 크며 「미야자키」나 「오오이타」 등 6개 현이 악화, 「사가」와 「카고시마」의 2개 현이 개선되었다.
- 「시코쿠」(47.7) …동 2.1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지역내 4개 현 전부가 개선되어 2개월만에 전국 1위가 되었다. 집중호우에 타격을 입었던 전년과 비교해서 날씨가 좋았던 것이 개선에 기여하였다. 더욱이 주력업체인 조선업이 견조하였던 것에 더하여, 공사를 지방건설업자가 낙찰하는 기회도 늘어나는 등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규모별로도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의 전 규모에서 개선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08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비
홋카이도	46.0	45.0	42.5	41.5	40.1	39.1	39.9	40.0	40.8	41.6	40.9	41.8	41.8	0.0
토호쿠	47.5	46.1	45.2	45.6	44.5	45.4	46.0	46.5	46.0	44.9	45.0	46.3	46.1	▲ 0.2
기타칸토	46.8	45.8	43.1	43.4	43.2	44.1	45.3	46.2	45.4	45.2	44.8	45.0	45.2	0.2
미나미칸토	46.5	45.4	44.4	43.8	43.6	44.7	46.0	46.8	46.2	46.5	46.1	46.8	46.1	▲ 0.7
호쿠리쿠	46.3	45.2	44.3	42.8	41.9	43.6	44.6	44.4	44.4	44.8	43.8	44.3	44.6	0.3
토카이	47.0	45.6	44.7	44.4	43.4	45.0	46.3	46.4	45.6	46.5	45.3	46.9	46.5	▲ 0.4
칸키	44.4	43.7	42.7	42.1	41.5	42.2	43.2	44.5	43.7	43.4	42.6	43.2	43.1	▲ 0.1
쥬고쿠	46.4	44.5	43.9	44.0	42.9	43.6	44.4	45.5	45.4	45.6	44.8	45.5	44.9	▲ 0.6
시코쿠	44.9	44.2	44.5	43.5	43.6	43.8	45.5	46.6	47.7	46.9	46.3	45.6	47.7	2.1
큐슈	45.9	46.0	45.4	44.2	44.7	45.3	46.6	47.2	46.2	45.6	44.3	44.9	44.5	▲ 0.4
격차	3.1	2.4	2.9	4.1	4.6	6.3	6.7	7.2	6.9	5.3	5.4	5.1	5.9	

※색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